

중학생의 진로성숙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The Effects of Career Maturity on School Adjustment in the Middle School Students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Sense of Community-

이시연

서울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Si-Yeon Lee(syl@sjs.ac.kr)

요약

본 연구는 중학생의 진로성숙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진로성숙도와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의 2015년 청소년 나눔활동의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의 횡단조사 데이터를 토대로 중학생 총 2,121 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의 진로성숙도는 학교생활적응에 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중학생의 진로성숙도는 공동체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중학생의 공동체의식은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중학생의 진로성숙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 향상 및 진로성숙도와 공동체의식의 함양에 관련된 정책적 및 실천적 함의를 제안하였다.

■ 중심어 : | 진로성숙도 | 학교생활적응 | 공동체의식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career maturity on school adjustment in the middle school students on the mediating effect of sense of community. The data of 2,121 middle school students in the research into the state of adolescent activities and improvement plans(2015) by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were analysed.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1) career maturity was found a key factor affecting the school adjustment of middle school students, (2) their career maturity had a positive affect on the sense of community, (3) sense of community affects school adjustment of middle school students, (4) sense of community was proved to have a mediating effect between the effects of career maturity and school adjustment.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are reviewed, as are the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 keyword : | Career Maturity | School Adjustment | Sense of Community |

I. 서론

청소년기는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생활하기 때

문에 그 어떤 시기보다도 학교 환경이 청소년의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1]. 청소년기의 발달과업과 관련하여

접수일자 : 2017년 05월 15일

수정일자 : 2017년 05월 29일

심사완료일 : 2017년 05월 29일

교신저자 : 이시연, e-mail : syl@sjs.ac.kr

여 학교는 청소년들에게 ‘심리적 독립’이라는 과업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차적 장소이며 올바른 가치를 정립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곳이다[2]. 따라서 학교 생활적응은 청소년기의 핵심적인 발달과제가 될 뿐만 아니라 개인의 발달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과업 중의 하나로 강조되고 있다. 청소년이 학교에 잘 적응하는 것은 청소년기 이후 직업적인 성취와 성인기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3].

특히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중학교 시기는 인간의 발달에서 제2의 탄생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하다. 인간의 생애에 있어 신생아 이후 두 번째로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인 측면이 모두 급격하게 성장하고 변화하는 시기이다[4]. 또한 심리사회적 발달상에서도 정체감 대 역할 혼미 단계[5]로 자신이 누구이고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시험해보고자 한다.

통계청 자료(2013)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들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는 공부 다음으로 직업에 관한 것으로, 지난 10년간 직업에 대한 고민이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6]. 이러한 것은 청소년들이 성인기로 이행하는 중에 자신의 사회적 역할을 준비해야 한다는 인식을 높게 가지고 있다는 측면을 보여준다[7].

중학교 시기는 발달단계상 평생의 진로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교육 및 진로관련 결정이 이루어진다[8]. 우리나라 현행 학제에서 중학교 과정은 학생들이 진로와 직업을 탐색하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생애 첫 진로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 고교 진학에 대한 진로결정을 하고 이는 직업선택을 위한 대학입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중학교 시기에 청소년들이 자신의 흥미와 적성, 가치관을 고려한 진로의 대안들을 탐색하고 적절한 진로선택의 준비를 시작해야함을 강조하고 있다[9][10]. 이와 같이 청소년의 진로탐색 및 준비와 관련된 개념이 진로성숙도(career maturity)이다. 진로성숙도는 진로발달과정에서 경험하는 환경적 요구에 대처하는 준비도로서 진로문제와 관련된 개인의 발달 정도와 수준의 지표가 된다[11].

진로성숙도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과 관련이 높다

는 연구들에도 불구하고[12-15], 중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된 진로성숙도와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련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는 그 수가 부족한 실정이다. 진로성숙도의 발달은 성인기의 사회적응을 준비하여 만족할 수 있는 직업생활을 수행하게 할 가능성을 높이고,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을 적절하게 수행하여 청소년의 행복에 기여한다[16].

한편,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와 학교생활적응 간 관계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변인 중 하나는 공동체의식이다.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정체성을 확립해야 할 초기 청소년기에 공동체의식은 진로탐색 및 준비에 있어서 핵심적으로 다루어져야할 부분이다. 공동체의식은 청소년 자신의 이해를 바탕으로 타인에 대한 생각의 폭을 넓히고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식을 배우는 구체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17]. 공동체의식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공동의 생활환경 속에서 성장하면서 서서히 학습되고 형성되기 때문에 [18], 중학교 시기에 청소년들이 공동체의식을 발달시키는 것은 필수적이다.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공동체의식이 학교생활적응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18-21]. 특히 중학생들에게 학교는 시민의식의 기초인 공동체의식을 함양시켜 성인기의 성공적인 사회적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공간적, 시간적 장소가 된다[22][23].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중학생의 진로성숙도와 공동체의식,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를 검증하는 연구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상술한 것과 같이 진로성숙도와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와 공동체의식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각각 조사가 수행되었고, 세 변인 간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검토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각 변수 간 단선적인 영향 관계를 넘어서 청소년 초기에 해당하는 중학생의 진로성숙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이 지각하는 진로성숙도는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중학생이 지각하는 진로성숙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공동체의식이 매개하는 효과가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진로성숙도와 학교생활적응

학교생활적응은 학생 개개인이 학교환경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며 원만하게 학교생활을 수행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24]. 따라서 학교에 잘 적응하는 청소년은 학교에서의 모든 생활과 환경을 수용하고 교사, 친구들과 조화로운 관계로 만족스러운 상태를 유지하며 교과 및 교내 활동에서 자신의 욕구를 합리적으로 해결하여 만족감을 느끼고 유지한다[25]. 이와 같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은 수업적응, 규칙적응, 교우적응, 교사적응을 포함한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26][27].

중학교 시기에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수행해야 할 핵심적인 발달과업이 진로발달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진로성숙도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진로성숙도는 Super(1957)에 의해 처음 소개된 개념으로 진로선택이나 진로의사결정을 위한 준비 정도를 의미한다[28]. 즉, 진로성숙도는 청소년 개인이 자아와 직업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 발달을 위한 지식을 습득하고 계획해나가는 수준이라 할 수 있다[10]. 청소년들은 진로성숙도가 잘 발달할수록 삶의 목표와 전망을 확실하게 갖게 된다[29][30]. 따라서 진로를 계획, 탐색하고 결정하는 중학교 시기에 있어서 진로성숙도는 청소년 개인의 역량과 인식, 능력이다[31].

진로성숙도는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학교생활적응에 관련된 청소년기 진로발달의 핵심 변인으로 밝혀져 왔다[32]. 김유나(2009)의 연구에 따르면[13], 진로성숙도가 학교생활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진로성숙도의 하위변인 중에서는 진로확신성과 진로준비성이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

다.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12]에서도 진로성숙도는 학교생활적응에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청소년이 자신의 진로에 대하여 알아보고 조사하여 진로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학교생활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24]. 이와 같이, 진로성숙도는 학교의 규칙, 수업, 교우관계, 교사관계 등 학교생활적응의 전반적인 하위요인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진로성숙도, 공동체의식과 학교생활적응

공동체의식은 어떤 집단이나 조직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 소속감, 상호의존성, 상호헌신을 인식하는 것이다[33]. 또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스스로가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고 이를 내면화하고 사회에 참여하는 것이다[34]. 특히, 책임감과 공동체의식은 청소년 레질리언스의 정적 변화요인으로 강조되고 있다[35]. 즉 공동체의식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소속감과 관련된 집합의식을 가리킴과 동시에 공동체를 함께 유지, 발전시키는 역할을 다하려는 실천적 의식이라 할 수 있다[36].

공동체의식과 진로성숙도 간의 인과관계를 논의한 선행연구에 따르면[37], 공동체의식은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와 관련된 주요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진로성숙도는 공동체의식과 같은 시민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청소년의 공동체의식, 준법과 책임에 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이 검증되었다[38].

한편, 선행연구에 따르면, 공동체의식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있어서 영향력 있는 요인으로 논의되고 있다. 중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39], 공동체의식은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봉사활동을 통해서 공동체의식을 향상시키고 학교생활적응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공동체의식과 학교생활적응의 하위요인들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동체의식의 발달은 학교규칙을 잘 준수하게 하고[40], 학습 성과에 효과적이며[41][42], 교우관계 및 교사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43]. 중학교 1학년의 공동

체의식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연구에 따르면[21], 청소년의 공동체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학습활동을 잘 하고 학교규칙을 잘 지키고 교우 및 교사관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하면, 공동체의식은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 하위 요인 전반에 걸쳐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III. 방법 및 절차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중학생의 진로성숙도가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공동체의식이 진로성숙도와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선행연구를 토대로[2][27][44],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성별, 학년, 경제수준, 학업성적은 통제변수로 모형에 포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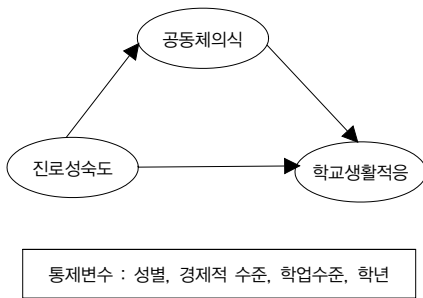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2.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 활용한 분석 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NYPI)에서 2015년에 수행한 ‘청소년 나눔활동의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의 자료(NYPI 횡단조사)이다[45]. 이 조사는 전국의 초등학교(4~6학년), 중학생(1~3학년), 고등학교(4~6학년)를 대상으로 층화다단계 집락표집 방법을 사용하여 수행된 전국 단위의 대규모 횡단조사이다. 총 표본 조사 수는 7,052명으로 본 연구 대상은 중학생 1~3학년 총 2,448명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 측정변수에 대한 결측 자료를 제외하고 2,121명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3. 측정도구

3.1 학교생활적응

학교생활적응은 NYPI 횡단조사(2015)에서 제공한 척도로서 총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45]. 학교생활적응은 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우관계, 교사관계 등의 하위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각 점수 범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5점)’로 이루어져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의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문항 중 부정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역코딩 한 후 평균을 구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학교생활적응 전체 신뢰도(Cronbach’s α)는 .908 로 타났고, 각 하위 요인별 신뢰도(Cronbach’s α)는 학습활동 .765, 학교규칙 .826, 교우관계 .698, 교사관계 .870 으로 나타났다.

3.2 진로성숙도

진로성숙은 NYPI 횡단조사(2015)에서 제공한 척도로서 직업체험과 자기발견에 대한 총 1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45].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각 점수 범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5점)’로 이루어져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성숙의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신뢰도(Cronbach’s α)는 .925 로 나타났다.

3.3 공동체의식

공동체의식 척도는 NYPI 횡단조사(2015)에서 제공한 척도로서 이타성,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 등 총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45].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각 점수 범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5점)’로 이루어져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공동체의식의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문항 중 부정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역코딩 한 후 평균을 구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신뢰도(Cronbach’s α)는 .720 으로 나타났다.

3.4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선행 연구에 근거하여[2][27][44], 성별, 학년, 경제수준, 학업성적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성별은 여학생은 '0', 남학생은 '1'로 처리하였다. 학년은 중학교 1학년을 '1'로, 2학년은 '2', 3학년은 '3'으로 처리하였다. 경제수준은 '매우 못산다(1점)~매우 잘 산다(7점)'로 구성된 7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이 지각하는 주관적인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업성적은 '매우 못하는 수준(1점)~매우 잘하는 수준(5점)'으로 구성된 5점 리커트 척도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성적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SPSS 24.0 window를 활용하였다. 기초통계자료를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를 수행하고 주요 변수에 대한 신뢰도 분석(Cronbach's α)을 실시하였다. 주요 변수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 검증은 위해서는 Baron과 Kenny(1996)가 제안 한 3단계에 따라서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46]. 마지막으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Sobel 검증 방법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는 [표 1]에서와 같이 남학생은 1,258명(59.3%), 여학생은 863명(40.7%)으로 나타났다. 학년은 1학년 596명(28.1%), 2학년 770명(36.3%), 3학년 755명(35.6%)으로 조사되었다.

주요 변수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진로성숙도 3.23(SD=.76), 공동체의식 3.22(SD=.36), 학교생활적응은 3.47(SD=.58)로 나타났다. 주관적 경제수준은 4.45(SD=1.03)이고, 학업성적은 3.01(SD=1.03)로 조사되었다. 측정변수들이 정규성을 만족하는지를 알아보

기 위하여 왜도와 첨도를 확인한 결과, 정규분포 조건인 왜도 < 2, 첨도 < 4 이하로 정규 가정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 조사대상자의 특성 (N=2,121)

개념	구분	빈도	백분율(%)
성 별	남	1,258	59.3
	여	863	40.7
학 년	1학년	596	28.1
	2학년	770	36.3
	3학년	755	35.6

표 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N=2,121)

변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진로성숙도	3.23	.76	.22	.39
공동체의식	3.22	.36	1.03	1.77
학교생활적응	3.47	.58	.28	.28
경제수준	4.45	1.03	.11	.89
학업성적	3.01	1.03	.08	-.46

2.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본 연구의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표 3]과 같다. 학교생활적응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하위영역별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인 진로성숙도는 종속변수인 학교생활적응의 모든 하위차원에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고(학습활동 $r=.336$, 학교규칙 $r=.329$, 교우관계 $r=.324$, 교사관계 $r=.325$, 모두 $p<.01$ 수준), 매개변수인 공동체의식과도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r=.246, p<.01$). 이를 통해 진로성숙도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의 수준이 높고, 공동체의식도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매개변수인 공동체의식은 학교생활적응의 모든 하위차원과 정적인 상관관계로 나타남으로써(학습활동 $r=.375$, 학교규칙 $r=.389$, 교우관계 $r=.459$, 교사관계 $r=.377$, 모두 $p<.01$ 수준), 공동체의식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의 수준도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성별은 공동체의식($r=-.140, p<.01$)과 학교규칙 ($r=-.089, p<.01$) 및 교우관계($r=-.123, p<.01$)에서만 약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나 여학생이 남학생과 비교하여 볼 때,

공동체의식이 다소 높고 학교규칙 및 교우관계 수준의 학교생활적응도 다소 높은 것으로 이해된다.

경제수준은 진로성숙도($r=.177, p<.01$), 공동체의식($r=.093, p<.01$), 학교생활적응의 모든 하위차원에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학습활동 $r=.223$, 학교규칙 $r=.157$, 교우관계 $r=.192$, 교사관계 $r=.152$, 모두 $p<.01$ 수준). 학업성적도 진로성숙도($r=.198, p<.01$), 공동체의식($r=.132, p<.01$), 학교생활적응의 모든 하위차원에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학습활동 $r=.462$, 학교규칙 $r=.241$, 교우관계 $r=.275$, 교사관계 $r=.195$, 모두 $p<.01$ 수준). 이는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경제수준이 높고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진로성숙도, 공동체의식, 학교생활적응의 수준이 높다고 해석된다.

학년은 진로성숙도($r=-.068, p<.01$), 공동체의식($r=-.076, p<.01$), 학교생활적응의 모든 하위차원(학습활동 $r=-.056$, 학교규칙 $r=-.076$, 교우관계 $r=-.083$, 교사관계 $r=-.114$, 모두 $p<.01$ 수준)에서 약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진로성숙도, 공동체의식, 학교생활적응의 수준을 다소 낮게 인식한다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계수는 $r=.6$ 보다 낮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우려할 수준이 아니었다.

표 3.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N=2,121)

	(1)	(2)	(3)	(4)	(5)	(6)	(7)	(8)	(9)	(10)
(1)진로성숙도	1									
(2)공동체의식	.246**	1								
(3)학습활동	.336**	.375**	1							
(4)학교규칙	.329**	.389**	.556**	1						
(5)교우관계	.324**	.459**	.558**	.582**	1					
(6)교사관계	.325**	.377**	.523**	.514**	.546**	1				
(7)성별	.012	-.140	-.033	-.089	-.123	-.031	1			
(8)경제수준	.177**	.093**	.223**	.157**	.192**	.152**	.011**	1		
(9)학업성적	.198**	.132**	.462**	.241**	.275**	.195**	.055**	.248**	1	
(10)학년	-.068	-.076	-.066	-.076	-.083	-.114	.063	-.089	.012	1

$\rho<.05$, ** $\rho<.01$

3. 매개효과 검증

중학생의 진로성숙도와 학교생활적응 간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Baron과 Kenny(1996)가 제시한 절차에 따라서 단계적 중다

회귀분석을 활용하고, 매개효과 유의미성은 Sobel 검증을 실시하여 검증하였다[46]. 진로성숙도와 학교생활적응 간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는 [표 4]와 같다. 회귀모형의 적합도 평가에서 Durbin-Watson의 d 통계치는 모두 2에 근접하여 잔차의 정상분포를 가정할 수 있고, VIF는 모두 1에 근접하여 다중공선성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먼저, 독립변수인 진로성숙도가 매개변수인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서 성별, 주관적 경제수준, 학업성적, 학년을 통제하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1단계 모델의 설명력(R^2 값)은 .093, F 값은 43.512($p<.001$)로서, 모델의 설명력과 적합도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진로성숙도의 회귀계수값(β)은 .222($p<.001$)로서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 대상자인 중학생들의 진로성숙도가 높을수록 공동체의식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통제변수들은 학업수준이 높을수록, 학년이 낮을수록, 여학생일수록 공동체의식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제적 수준은 공동체의식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2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진로성숙도가 종속변수인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1단계와 같이 성별, 주관적 경제수준, 학업성적, 학년을 통제하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 2단계 모델의 설명력(R^2 값)은 .267, F 값은 154.262($p<.001$)로서, 모델의 설명력과 적합도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진로성숙도의 회귀계수값(β)은 .331($p<.001$)로서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 대상자인 중학생들의 진로성숙도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통제변수들은 주관적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학년이 낮을수록, 여학생일수록 학교생활적응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진로성숙도와 매개변수인 공동체의식이 종속변수인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통제변수를 투입하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3단계 모델의 설명력(R^2 값)은 .398, F 값은 232.749($p<.001$)로서, 모델의 설명력과 적합도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분석결과, 진로성숙도의 회귀계수값(β)은 .247($p<.001$), 매개변수인 공동체의식의 β 값은

.379($p < .001$)로 모두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또한 2단계에서의 독립변수의 효과도 3단계에서 독립변수의 효과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은 Sobel 검증으로 확인하였다($Z=9.334, p < .001$). 즉, 진로성숙도가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공동체의식은 부분매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진로성숙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 (N=2,121)

단계		B	β	t	R^2	F
1단계 (독립 → 매개)	성별	-.106	-.145	-6.98***	.093	43.512
	경제수준	.010	.028	1.298		
	학업성적	.031	.090	4.137***		
	학년	-.023	-.052	-2.475*		
	진로성숙도	.104	.222	10.386***		
2단계 (독립 → 중속)	성별	-.115	-.097	-5.195***	.267	154.262
	경제수준	.050	.089	4.597***		
	학업성적	.155	.275	14.112***		
	학년	-.052	-.071	-3.767***		
	진로성숙도	.252	.331	17.243***		
3단계 (독립, 매개 → 중속)	성별	-.050	-.042	-2.450*	.398	232.749
	경제수준	.044	.079	4.463***		
	학업성적	.136	.241	13.583***		
	학년	-.037	-.051	-2.998***		
	진로성숙도	.188	.247	13.833***		
	공동체의식	.614	.379	21.410***		

* $p < .05$, ** $p < .01$, *** $p < .001$

V. 논의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성숙도와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에서 공동체의식이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성숙도는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성숙도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간의 인과관계를 연구한 기존의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13-15]. 특히, 중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성숙도가 높을수록 학교생

활적응이 높은 것으로 검증된 국내 연구결과들[12][23]과도 동일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진로성숙도가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직접적인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둘째, 진로성숙도는 중학생의 공동체의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성숙도가 공동체의식과 같은 시민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37],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에 정적인 영향력을 주고 있다[38]는 선행연구 결과와 동일한 결과이다.

셋째, 중학생의 공동체의식은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진로성숙도와 학교생활적응의 경로에서 부분매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이 학교생활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18][19][47]과 같은 결과로서, 공동체의식이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강조한 연구들[21][39][40][43][48]과도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을 높이기 위해서는 진로성숙도를 향상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진로발달에 있어서 중학생들의 공동체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통합적인 방법을 개발하고 실시해야 한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을 높이기 위해서는 입학할 때부터 체계적인 진로지도를 실시하여 진로성숙도가 잘 발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입이 강조된다. 현재 우리나라 전국의 중학교에서는 2016년부터 자유학기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의 학업 흥미도를 높이고 진로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도입되었다. 그러나 중학생의 소질과 적성개발 등 진로 관련 활동에 대한 학교생활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난 통계청 조사 결과(2017)에서도 알 수 있듯이[49], 아직까지 중학생의 진로성숙도를 높일 수 있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교육 분야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시험 부담이 사라지면 학생들이 수업 및 공부에 태만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28]. 이는 새로운 제도가 효과적으로 기능하기도 전에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게 한다. 따라서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통하여 청소년들이 자신의 적성과 가치관을 충분히 탐색하고 미래를 계획하며 성인기의 사회적응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 과정이 구축되어야 한다. 즉, 전문적인 진로검사를 실시하고, 직업탐방 및 체험 등의 직업탐색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진로성숙도를 발달시키고 학교생활적응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있어서 공동체의식의 중요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공동체의식의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중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39], 봉사활동을 통한 공동체의식의 향상이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동아리활동과 체험활동이 중학생의 공동체의식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50]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현재 학교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봉사활동 뿐만 아니라 학교와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천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전국 단위 대규모 횡단조사 자료의 분석을 활용함으로써 연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다. 그러나 2차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중학생의 진로성숙도와 학교생활적응에 있어서 보다 다양한 변수들을 반영하지 못한 한계를 가진다. 후속 연구를 통하여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관련된 다양한 통제변수를 확인하고, 공동체의식과 학교생활적응의 하위변인 간의 관련성에 대하여 보다 심층적인 탐색과 검증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1] 좌현숙, “청소년 내재화 문제 관련 변인에 관한 메타분석: 보호요인을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제36권, pp.97-127, 2016.
 [2] 이미라, 박분희, “청소년의 외현화문제, 내재화문제, 성취가치, 학교생활적응 간의 구조적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17권, 제1호, pp.517-535, 2017.
 [3] 강유진, 문재우, “청소년 학교적응에 대한 가족요인의 영향: 가족배경요인과 가족관계요인의 상대적 영향력,” *한국청소년연구*, 제6권, 제1호, pp.283-316, 2005.
 [4] 박미자, *중학생, 기적을 부르는 나이*, 파주: 들녘, 2013.
 [5] E. Erikson,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Inc., 1969.
 [6] 통계청, *2013 청소년 통계*, 2013.
 [7] 유미숙, 정계숙, 박수홍, 차지량, 홍광표, “아동 및 청소년이 지각하는 행복에 대한 인식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31권, 제3호, pp.15-26, 2013.
 [8] 임효신, 정철영, “중학생 진로개발역량 검사도구 개발,” *한국진로교육학회*, 제28권, 제4호, pp.107-137, 2015.
 [9] 이종범, 정철영, 김봉환, “중학생의 가족관련변인과 진로포부 및 진로의식간의 관계분석,” 제1회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pp.785-813, 2005.
 [10] 이현미, 정제영, “중학생의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청소년학연구*, 제24권, 제2호, pp.117-139, 2017.
 [11] S. H. Osipow and L. Fitzgerald, *Theories of Career Development*(4th ed.), Needham Heights, MA: Allyn & Bacon, 1996.
 [12] 김초선, *남·녀중학생의 자기효능감, 희망, 진로의식성숙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강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13] 김유나, *청소년의 진로성숙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14] 정미숙, *진로성숙도가 비행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보호관찰 청소년 대상으로*,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15] 최미경, “청소년의 진로성숙도 및 불안과 학교적응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제34권, 제4호, pp.65-81, 2013.

- [16] J. M. Hinkelman and D. A. Luzzo, "Mental Health and Career Development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Vol.85, pp.143-147, 2007.
- [17] D. W. McMillan and D. M. Chavis, "Sense of Community: A Definition and Theor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Vol.14, pp.6-23, 1986.
- [18] 박재숙, "학교청소년의 수련활동과 자원봉사활동, 자아존중감, 공동체의식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제17권, 제4권, pp.157-182, 2010.
- [19] 김원태, "고등학교에서의 사회체험교육과 시민형성에 관한 연구," *시민교육연구*, 제33권, pp.49-88, 2001.
- [20] 조안나, 이은경, 장미경, "중학생의 팬덤활동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 *인문학논총*, 제40집, pp.201-226, 2016.
- [21] 최형임, 문영경,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삶의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제45권, pp.189-209, 2013.
- [22] 고관우, 남진열, "초기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 영역에 따른 공동체의식과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학회지*, 제14권, 제4호, p.231-250, 2011.
- [23] 최선미, 배장오, "사회성의 매개효과에 기초한 중학생의 진로결정이 학교생활 적응역량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제23권, 제9호, pp.473-493, 2016.
- [24] G. W. Ladd, B. J. Kochenderfer, and C. C. Coleman, "Friendship Quality as a Predictor of Young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Vol.67, No.3, pp.1103-1118, 1996.
- [25] 윤은중, 김희수, "청소년의 생활양식 유형과 정신건강 및 학교적응과의 관계," *청소년복지연구*, 제7권, 제2호, pp.105-120, 2005.
- [26] 염정원, 조한익, "청소년의 외현화, 내재화 문제 행동과 학교생활적응의 중단적 인과관계 분석," *교육심리연구*, 제30권, 제1호, pp.195-223, 2016.
- [27] 원재순, 김진숙,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 간 상관관계 메타분석," *청소년학연구*, 제23권, 제9호, pp.177-205, 2016.
- [28] 김동일, 남지은, 강민철, "중학생의 대인관계지능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학급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 *아시아교육연구*, 제16권, 제1호, pp.1-22, 2015.
- [29] 구재선, 김의철, "심리적 특성, 생활 경험, 행복의 통합적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20권, 제4호, pp.1-18, 2006.
- [30] 전해진, 유미숙, "청소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자아존중감, 진로성숙도 및 미시체계 변인의 경로 분석," *청소년학연구*, 제22권, 제6호, pp.75-104, 2015.
- [31] 한은영, 이재원, "청소년의 비행성향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제24권, 제3호, pp.323-355, 2013.
- [32] 장부연, *중학생의 자아정체감과 학교적응도 및 진로성숙도의 관계*,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33] S. M. Reich, "Adolescents Sense of Community on My Space and Facebook: A Mixed Methods Approach,"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Vol.38, No.6, pp.688-705, 2010.
- [34] 송진영, 최영란, "고등학교의 청소년활동참여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공동체의식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제22권, 제5호, pp.179-207, 2016.
- [35] 박기령, 최중진, "청소년 레질리언스(resilience) 연구 동향 분석: 국내 학술지 게재논문을 중심으로(1998-2015)," *청소년학연구*, 제23권, 제10호, pp.451-478, 2016.
- [36] 박주현, 이태자, "청소년 체험활동의 참여시간과 참여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와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효과: 학교생활적응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시설환경*, 제13권, 제2호, pp.237-248, 2015.
- [37] 광미정, 문신용, "시민의식 영향요인 연구: 청소년

년봉사활동의 동기, 진로성숙도, 학업스트레스를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NGO, 제8권, 제2호, pp.111-141, 2010.

[38] 박관숙, 김성희, “청소년 자원봉사의 이타성과 이기성, 진로성숙도, 시민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 시민윤리학회보, 제25집, 제2호, pp.117-136, 2012.

[39] 박재숙, “중학교 신입생의 봉사활동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 분석,” 청소년학연구, 제20권, 제9호, pp.1-24, 2013.

[40] 위유라, 노충래, “청소년의 부정적 정서 및 공격성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 청소년복지연구, 제16권, 제2호, pp.203-227, 2014.

[41] 조명주, *학습자의 공동체의식과 학교생활적응 및 학업성취도와와의 관계*,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42] 진성희, 이동주, “온라인 협동학습에서 공동체의식과 토론참여도 및 학습만족도 간의 관계,” 평생학습사회, 제6권, 제1호, pp.65-87, 2010.

[43] 홍나미, “청소년 봉사활동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과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 청소년 문화포럼, 제44권, pp.157-180, 2015.

[44] 유순화, “중학교 신입생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청소년학연구, 제15권, 제7호, pp.157-180, 2008.

[45] 이경상, 조용하, *청소년 나눔활동의 실태 및 개선 방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

[46] R. M. Baron and D. A. Kenny, “The Moderator-mediator v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ety Psychology*, Vol.51, pp.1173-1182, 1986.

[47] 정수빈, 김지태, 김은성, “청소년의 신체적 유능감, 자아존중감, 공동체의식, 학교생활적응의 구조적 관계 모형,” 한국웰니스학회지, 제11권, 제3호, pp.327-343, 2016.

[48] 조호운, 강중대, “부모의 과보호, 청소년의 행복

감, 공동체의식, 학교적응의 구조적 관계,” *청소년 시설환경*, 제14권, 제2호, pp.139-146, 2016.

[49] 통계청, 여성가족부, *2017 청소년 통계*, 2017.

[50] 강가영, 장유미,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에 관한 연구,” *미래청소년학회지*, 제10권, 제1호, pp.97-123, 2013.

저 자 소 개

이 시 연(Si-Yeon Lee)

정회원



- 2001년 2월 : 서울여자대학교 사회사업학과(사회복지학박사)
- 2003년 9월 ~ 현재 : 서울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 사회복지실천